1,100원대 엔화 2년새 300원 내려

광주·전남 對日 수출업체들 "비명"

일본 펀드들도 수익률 큰 손실

원·엔환율이 11년만에 최저치인 100엔당 7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광주·전남지역내 대 일본 수출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원·엔환율은 지난 2004년 2월 1천100원 선에서 2년여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 8월 초까지 810~840원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날 오전 10시 현재 798.00원에 거래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10개의 역외 일본 펀드들도 연초 이후 지난 10일까지 평균 수익률은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0.11%였던 반면 원화로 환산할 경우 -15.81%로 손실 폭이 커졌다.

◇**대일 수출 '비상'**=광주·전남지역에서 대일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155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대비 올 1~8월 수출증가율은 13.9%로, 지난해 증가율 15.7%를 밑돌았다.

특히 반도체(-2.3%), 주철(-16.1%), 금형류(-50.2%), 열연강판(-6.7%), 냉연강판(-20.4%), 기초유분(-32.2%), 합성수지(-11.6%) 등이 부진했다.

수출을 포기하는 광주·전남지역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다. 대일 수출농가는 50여 가구로, 올 1~8월 수출액은 1억700만달러를 그쳐 지난해 동기대비 22% 감소했다.

원·엔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자 파프리카·미니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수출을 망설이고 있다.

전남무역 관계자는 "고유가에다 원·엔환율마저 급락,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원·엔환율이 최소 100엔당 870원선은 넘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수출도 타격**=엔저가 일본과의 교역에 비치는 영향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파괴력이 훨씬 크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엔저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하나, 우리나라 제품은 대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3개국이 공통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100대 품목 중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합하는 품목은 지난해 기준으로 45개에 달해 절반에 가깝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북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하락과 함께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는 처지다.

특히 지난 16일 현재 엔화는 전년말 대비 7.3%나 떨어져 광주공장 제품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셈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수익성 만회를 위해 가격을 인상해야 하나, 엔화 약세로 상대적인 여유를 갖춘 일본 기업들 때문에 가격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LG전자 제품도 북미시장에서 가격이 30% 저렴한 LCD-TV를 출시한 일본 샤프에 고전 중이며, 포스코는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본 철강업체들의 도전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정부는 추가적인 엔화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외환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업계는 업계대로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통한 품질향상,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 물류비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새 자동차 번호판 국산차에 안맞아

가로가 길어 뒤 쪽 부착 불능

내달 1일부터 현대차의 일부 차종을 제외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하는 대부분 승용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 뒷부분의 규격이 새 번호판의 규격과 차이가 있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비교적 최근 출시한 베라크루즈·싼타페·아반떼·투스카니 등 4개 차종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 도입에 맞춰 준비를 해온 만큼 내달 1일부터는 새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이다.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가량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판매·출고되는 차의 뒤쪽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뒤에야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 번호판이 도입되는 내달 1일 이후 당장 이에 맞는 차량을 제작,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고, 대신 완성차 업체들이 각 차종의 모델을 변경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조8,500억

일등공신은 'D램' 4분기도 '장밋빛'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 반도체, LCD, 휴대전화 등 3대 핵심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1조8천500억원에 육박, 전분기 대비 크게 호전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이 D램 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원대를 다시 회복했고, LCD 부문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배나 증가했다. 또 휴대전화 부문도 1분기만에 영업이익률 10%대로 복귀했다.

삼성전자는 4·4분기에도 주요 사업 부문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1조8천5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했으나 전분기보다는 30% 증가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원대에서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1조5천억원 안팎으로 떨어졌으나 3·4분기에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1조8천억원대)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호조와 상반기 고전했던 LCD 부문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반도체 부문은 매출 4조9천1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 전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LCD 부문은 매출 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전체 매출은 15조2천2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 전분기 대비 8%씩 성장했고, 순이익은 2조1천9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전분기에 비해 45%씩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4·4분기에 주요 사업 부문이 계절적 성수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경우 4분기 PC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운영체제(OS)인 '윈도비스타'를 탑재한 PC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D램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낸드플래시도 최고 8기가바이트(GB) MP3플레이어가 출시되는 등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비트 성장률이 40% 중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삼성 와이브로 시연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와이맥스 포럼 서울총회'에서 외국인 참석자들이 삼성전자 와이브로 시연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대북사업 '휘청'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불투명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걸어온 대북경협사업이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대북사업은 1998년 금강산관광 성사에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되는 듯 했으나 이후 미국 부시 정부 출범과 '대북송금' 특검사건 등의 여파로 정체 국면에 빠져들었고 이번 북 핵실험의 여파까지 가세,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대북경협사업의 초창기 주역인 현대상선은 북한 사업에 이제는 손을 놓았다. 현대상선은 장전항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만 낸 채 북한 진출 3년만인 2001년 7월, 계열사인 현대아산에 모든 대북사업을 넘기고 철수했다. 지금도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지만 대북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계 선두인 삼성그룹은 90년대 중반부터 의류와 TV, 전화기 등을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대북사업의 명맥만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임가공 수수료 기준으로 사업규모가 연간 200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LG그룹의 대북사업은 LG상사와 LG전자가 주축이었다. LG상사는 99년 대북사업에서 970만달러 규모의 물자교역과 422만달러 규모의 위탁가공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사업 기록을 찾는 일조차 힘들 만큼 '잊혀진 시절'이 되고 말았다. LG전자는 96년부터 지금까지 평양 인근 '대동강TV'에서 임가공 형태로 연간 2만대 가량의 평면 브라운관TV를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북핵 사태의 여파로 내년도 물량을 추가 계약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밖에 중견기업인 평화자동차는 북한에서 내수용 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비교적 활발히 대북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번 북핵사태로 인해 기로에 섰다.

/연합뉴스

금융종합소득세 내는 富者는 바보?

'백만장자' 8만6,000여명 과세 대상자 2만3,000명 대부분 '稅테크'로 빠져

최근 메릴린치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8만6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천여명에 불과해 의문을 낳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공평과세·소득재분배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 4~5%대의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할 때 100만 달러(약 9억5천만원)이면 4천만원 이상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금융자산가들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합법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稅) 테크'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자산가들은 분리과세를 신청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이자귀속 시점(만기)을 조정하는 방식 또는 연금보험·주식형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종합과세의 최고 세율은 35%이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의 세금만 내면 된다. 연 금융소득을 4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금융상품의 이자 발생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주요 세테크 방법이다. 무엇보다 금융자산가들이 '애용'하는 방식은 장기보험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

10년 이상 장기보험에 일시납으로 투자하면 정기예금 이상 수익을 거두면서도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며,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도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연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각종 절세법이 보장돼 있는 만큼 10배 이상 격차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생계형 체납자 자산압류 유예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가 유예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의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 유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청장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 언급,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이력 등을 국세통합관리시스템(TIS)으로 관리하고 조사자중 상습 투기자에 대해서는 연2회씩 주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파악해 소득 탈루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는 약 2만6천건이었으나 올해는 2만3천건으로 줄일 예정이며 2007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녀 1명 초등~대학 교육비 7,400만~1억5,300만원선

삼성증권 분석

삼성증권은 16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6년간 자녀 1명의 교육을 위해 미래에 소요될 자금의 현재가치가 대체로 7천400만~1억5천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확정부 금리상품보다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의 투자를 통해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삼성증권의 분석자료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와 국회 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보통수준 지출(월 15만원) ▲약간 많이 지출(월 33만원) ▲다소 많이 지출(월 60만원) 등 3가지 지출모델을 구성하고, 여기에 2000년 이후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첫 5년간 6%, 이후 연 3.5%), 2000년 이후 도시 가계 지출 평균증가율 (첫 5년간 연간 5%, 이후 연 3.5%)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이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용과 유학,해외연수비용 등은 제외한 것이며, 대학교육 소요자금은 기본적 등록금만 포함시킨 것이다.

삼성증권은 체계적 대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로, 둘째 자녀의 교육이 본격화될 무렵부터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다.

모델 추정결과 둘째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전체 교육비가 소득의 15% 이내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이 때부터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소득의 최고 3분의 1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의 분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전자, 세계 100대 비금융 다국적 기업 86위

유엔무역개발회의 발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비금융 다국적 기업' 에서 2002년과 2003년 연속 93위였던 삼성전자가 2004년에는 7계단을 뛰어올라 86위를 기록했다.

UNCTAD가 16일 발표한 '2006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해외자산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비금융 다국적 기업 리스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여전히 유일하게 등재됐다.

1위는 미국의 GE, 2위와 3위는 영국의 보다폰과 포드 모터가 각각 차지한 것을 비롯해 100대 다국적 기업 중 85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대박상품 만들려면 국가통계 활용하라"

통계청 성공사례 소개

최근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대박신화를 일궈낸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최근 잘 팔리는 상품 20여개를 만들어낸 기업 마케팅팀에 국가통계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개 기업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인구주택총조사, 해외관광 여행객수, 인구동태조사 등 국가통계를 이용했다.

조사결과 두산주류BG는 1998년 이후 여성음주율이 급격히 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여성을 타깃으로 한 상품 '처음처럼'을 기획, 기존과 달리 제품 개발과정에 여성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출시 6개월 만에 전국시장점유율 10% 차지 등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CJ㈜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85년 66만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수가 1995년 164만가구로 10년새 2.5배 늘어나는 것을 보고 1996년 2~3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는 즉석밥 햇반을 출시한 결과 매년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오뚜기도 '씻어 나온 맛있는 오뚜기 쌀'이라는 상품을 개발해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미래세계	SK텔레콤 CRM센터[광주-주5일]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17	062-383-1756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8	062-236-0217
영풍문고	영풍문고 매장판매 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8	062-364-0210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지점책임자 (부지점장) 채용공고 (금융기관 경력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8	062-227-8000
임성희소아과의원	병원접수업무담당여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62-512-6212
㈜그린텔	KTF 동광주,서광주 멤버스플라자 정규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9	042-223-4900
더맨	의류 쇼핑몰 [더맨굿]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654-3727
신성하이텍㈜	가공기술/CNC선반/VMCT/3차원측정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952-1441
동양생명	[TM1위]본사콜센터 상담원 200명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2-518-2769
㈜케이아이앤씨 광주지사	경리 및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2-350-6577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25	011-649-9111
아이앤테크㈜	금형조립/밀링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5	062-959-9100
㈜대창	다이케스팅 제조 기술자, 작업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3-532-6070
산원건설㈜	도로및 택지현장 유경험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10/27	02-2242-018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